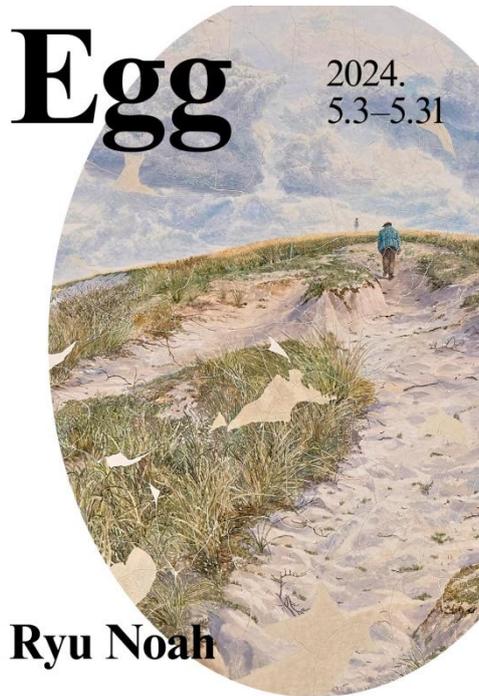


[Press Release] 총 7쪽

류노아 개인전 《Egg》



A-L

2F, 45 Baekseok-dong 1ga-gil,
Jongno-gu, Seoul, Korea
+82-2-395-8135
info@a-lounge.kr

Tuesday to Saturday: 16:00 - 18:00
Sunday & Monday: Closed

- 2024년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4 주 간 에이라운지에서 개최되는 류노아 개인전
- 류노아는 영속하는 시간과 대비되는 육체의 유한함을 주제로 작업
- 전시 《Egg》는 힐마 아프 클린트의 작품 <인식의 나무>에서 영감을 받은 원형의 실루엣에서 출발
- 류노아의 ‘알’은 그만의 세계관을 담아내는 우주적 알(cosmic egg)’로, 환생과 소멸, 발전과 쇠락, 자연과 문명, 현세와 내세를 다시금 작품의 주제로 소환시키는 회화적 장치

○ 전시 개요

전시 제목: 《Egg》

참여작가: 류노아

일 정: 2024년 5월 3일(금) - 5월 31일(금)

장 소: 에이라운지(A-Lounge)

(문의: 02-395-8135, 이승민 대표: 010-5222-8135)

개관시간: 화-토, 11am-6pm (일, 월 휴관)

입 장 료: 무료

웹사이트: www.a-lounge.kr

*Press Inquiries: 최하림 디렉터 (summerforest@a-lounge.kr, 02-395-8135)

○전시 내용

에이라운지 갤러리는 류노아 개인전 《Egg》을 5월 3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 《Egg》는 힐마 아프 클린트의 작품 <인식의 나무>에서 영감을 받은 원형의 실루엣에서 출발한다. 북유럽 신화의 기반이 되는 거대한 우주수(宇宙樹) 위그드라실(Yggdrasil)의 형상을 한, 이 ‘알’ 같은 형태는 작품 중심의 이미지를 감싸고 있다. 이 우주수 형상 안에 작가는 조물주에 의해 세상에 갓 태어난 벌거벗은 인간, 마치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듯한 노인과 그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 소녀,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뒤 다시 그 길을 돌아 내려가는 듯한 중년의 여성을 그려 넣는다. 그 주변으로는 수호천사나 악마로 보이는 작가가 수집하고 선별해 골라 넣은 고전적 도상들이 이를 둘러싸며 ‘알’의 바깥에서 인간의 삶과 죽음을 관망한다. 여기서 류노아의 ‘알’은 그만의 세계관을 담아내는 ‘우주적 알(cosmic egg)’로, 환생과 소멸, 발전과 쇠락, 자연과 문명, 현재와 내세를 다시금 작품의 주제로 소환시키는 회화적 장치로서 작용한다.

○작가 소개

류노아 (b.1984)

류노아는 영속하는 시간과 대비되는 육체의 유한함을 주제로 작업한다. 작가는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하여, 인간과 자연 그리고 예술품을 반복적으로 대조하며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대의 유물이나 종교화의 도상을 빌려오거나, 동양화 특유의 섬세한 필치로 크랙과 얼룩 등을 표면에 그려 넣어 시간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다. 반면 현대적 의복을 한 인물이나 전신주, 철길 등 산업화의 산물을 이전 시대의 공간에 그려 넣기도 하고, 작가가 직접 수집한 동시대의 자연 풍경을 오래된 도상들과 병치함으로써 화면 내부의 시간성 또한 교란한다.

서울대학교 동양화과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이후 암스테르담의 라익스아카데미(Rijksakademie)를 거쳐 라이프치히 국제 예술 프로그램(Leipzig international art programme)에 참여했다. 2013년 제 2회 종근당 예술지상과 2016년 네덜란드의 버닝 브롱어스 상(Buning Brongers Prijs)을 수상한 바 있다. 2010년 브레인 팩토리에서의 개인전을 시작으로, 살롱 드 에이치, 서울(2018); 브뤼셀의 c-o-m-p-o-s-i-t-e(2016); 그리고 에이라운지, 서울(2021) 등에서 전시를 가졌다. 이외에도 «구경꾼들», 두산 갤러리, 서울(2014); «종근당 예술지상 2회 수상전», 가나 인사아트센터, 서울(2015); «회화의 시간», 세종미술관, 서울(2019); «Lusus Naturae», BcmA, 베를린(2021); «Bring to Light», 프롬프트 프로젝트, 서울(2023) 등의 단체전에 활발히 참가해왔다.

○ 전시 서문

egg

어떤 방향을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인류의 일원이다..

나는 좋은 미술은 우리에게 지치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창문이라고 꾸준히 강조해왔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세계’는 곧 작가가 만든 세상이며 작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일 테다. 많은 미술 작품들이 삶의 다양성과 가치를 저마다의 그릇에 담고 있지만, 어떤 미술은 희한하게도 천차만별의 삶으로 깊숙이 들어가 한참을 탐험하게 만든다. 류노아의 회화를 보고 돌아오는 날이면 나는 오랜 시간 그의 작품 속에서 헤매고 항해해야만 했다. 중세시대부터 동시대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유럽의 끝자락부터 내가 사는 서울의 구석진 동네까지...류노아의 회화에서 만난 장소와 인물들, 알 수 없는 생명체들은 내 심연에 들어와 함께 살면서 다시 그 이미지들에 대해 곱씹어 생각하게 했다. 이런 과정은 늘 기쁘게 버거웠다.

거대한 미술사의 흐름과 화가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든 자신이 추구하는 환영을 찾는다. 우리 중 누군가는 류노아의 회화에서도 자신이 아는 미술사 속 이미지를 보물찾기처럼 발견해낼 것이다. <eye>에서는 미국의 화가 앤드류 와이어스의 <크리스티나의 세계>¹ 속 쓰러져있는 연약한 존재를 찾아내고, <fin>이나 <Shelter>에서는 중세시대나 고대 그리스·로마의 삽화 속에 등장할 만한 반인반수를 마주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본 류노아의 작업실은 ‘고전 이미지 사냥꾼’의 비밀스러운 요새 같았다. 류노아는 거대한 미술사의 시간과 대륙을 종횡무진으로 움직이며 본인이 마음에 드는 이미지들을 사냥해 작업실 곳곳에 붙여 놓고 그 이미지들을 마법 수프처럼 다시 끓여 자신의 세계를 재창조한다.

그렇다면 류노아가 미술의 역사에서 사냥한 이미지들은 어떤 의미로 작용해 두 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 작품들에 영향을 주었을까? 이번 전시의 제목 «egg»는 작품들을 감싸고 있는 ‘알’ 같은 형태로부터 시작되었다. 완전한 대칭도 아니고, 완전한 구(球)도 아닌 류노아가 택한 이 새로운 egg는 미술의 역사상 최초로 추상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진 스웨덴의 힐마 아프 클린트의 작품 <인식의 나무>(1913)²에서 영감을 받았다.

아프 클린트의 작품 속에서 존재하는 원형의 실루엣은 버섯 같기도 하고 해파리 같기도 하며 북유럽 신화의 기반이 되는 거대한 우주목 위그드라실(yggdrasil)³의 형상을 하고 있다. 류노아는 아프 클린트의 이 우주목 형상을 자신의 회화 안으로 합류시킴으로써 작가가 제안하는 틀이자 구획으로 활용한다. 대표 작품들에 반복되는 이 egg는 류노아만의 회화적 제식(祭式)으로 여겨진다. 마치 역사를 이겨낸 대성당의 튼튼한 돔처럼 류노아의 egg는 작품을 보는 이들에게 자신의 회화 안으로 들어오라고 재촉하며, 새로운 세계로 기꺼이 입장하고 싶은 기묘한 문의 역할이 되어주고 있다.

¹ 앤드류 와이어스, <크리스티나의 세계>, 1948, Tempera, Gesso, 82 cm x 121cm, MoMA

² 힐마 아프 클린트 (The Hilma af Klint 1862-1944) , <인식의 나무> 시리즈, HaK137, 1913-15. 출처: The Hilma af Klint Foundation

³ 북유럽 신화의 중심을 이루는 세계수로, 아홉 개의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

A-L

전시 제목과 동명의 작품인 <egg>에서는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웅크린 채 누워있다. 꿈과 현실이 녹아든 듯한 장소에서 하늘은 장엄하게 빛을 내리고 먹구름은 곧 퇴장할 기세다. 수호천사와 악마로 보이는 존재가 egg의 경계에서 인간을 지켜보고 있고 발 없는 용의 몸을 한 생명체도 인간에게 서서히 다가가고 있다. 이렇듯 류노아가 그린 세계는 환생과 소멸, 발전과 쇠락, 자연과 문화, 신앙과 현세의 의미를 평형한 진리로 품고 있다.

<eye>에는 좌절과 친구가 된 듯한 인간이 이름 모를 벌판에 홀로 남아있다. 앞서 말한 앤드류 와이어스의 <크리스티나의 세계>에서 쓰러져있는 크리스티나에서 영감을 받은 이 인물은 미술사에서 다시 끄집어낸 이미지의 파편이지만 류노아의 세계관에서는 다시 일어나 능동적으로 살아갈 존재로 보인다. 미술사 속의 이미지들을 사냥하는 과정에 대해 류노아는 뚜렷한 목적을 담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이미지들을 모은다고 표현했다. ‘즉 고전의 이미지를 사냥하는 자’로서 동시대 미술을 대하고 자신의 세계관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번 전시의 특별한 점 중 하나는 드로잉의 ‘재창조성’이다. 대부분 화가는 캔버스에 회화 작업을 하기 전 습작이나 아이디어 스케치용으로 드로잉을 하지만 류노아는 이와 반대다. 류노아는 회화를 그린 후 드로잉을 다시 제작한다. 여기서 ‘제작한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류노아의 드로잉이 산발적이거나 빠른 시간 동안에 캐치하는 크로키식 성질을 지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류노아의 드로잉은 인식과 확신의 과정이다. 그는 드로잉을 하나의 종이만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 같은 종이여도 더 창백한 백색과 조금 노란 미색의 종이, 마스크 테이프 등을 활용해 본인이 그려낸 회화 작업을 다시 재창조한다. 이 과정에서 류노아는 드로잉과 데콜라주⁴, 컷아웃⁵을 결합한다. 결과적으로 유화 작업에 앞서 진행하는 ‘과정으로서의 드로잉’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회화적 세계를 스스로 한 번 더 묘사함으로써 중복되는 과정을 되풀이한다. 결국 재창조된 드로잉으로 인해 류노아가 만든 세계는 더욱 확고해진다. 앙드레 말로가 《침묵의 소리》에서 예술은 ‘형식으로 다른 형식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듯이 류노아는 자신의 회화를 드로잉과 데콜라주, 컷아웃 형식을 결합해 재탄생시킴으로써 자신의 회화적 세계를 정복하는 일을 반복한다.

마지막으로 전시에서 가장 큰 작품인 <fin>을 다시 보자. 한 사람이 끝없이 걸어가고 있고 저 멀리 누군가는 걸어오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 시대의 소음 속에서 잠시 겁먹고 지쳐버린 우리는 류노아가 창조한 세계 속 인물들처럼 어딘가를 서성거리다가, 무엇인가를 찾다가, 거닐다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 목적지를 향해간다. 류노아의 회화에서 만나는 미술의 역사에서 솔하게 창조와 재창조된 이미지들은 우리가 어떤 방향을 하더라도 결국 인류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글. 소통하는 그림연구소 대표, 미술 에세이스트 이소영

⁴ 데콜라주(Decollage): 콜라주의 반대말로서 떼어내고 박탈한다는 의미. 일상적인 사물을 찢어내고 지우며 불태우는 등의 파괴 행위에 의해 우연한 효과를 기대하는 기법.

⁵ 컷아웃(Cut-out): 미술에서 주로 종이나 기타 재료를 자르고 이를 다시 배열하여 새로운 이미지나 형태를 만드는 방식. 이 기법은 특히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에 의해 유명해졌는데, 그는 노년기에 건강이 악화되면서 대형 종이에 색을 칠한 후 그것을 다양한 형태로 잘라내어 벽, 캔버스 혹은 기타 표면에 배치했다.

○ 대표 작품



Fin
2023
112.1 x 163 cm
oil on canvas



Eye
2023
91 x 116.8 cm
oil on canvas



Ego
2024
61 x 73 cm
oil on canvas



Egg
2022
60 x 50 cm
oil on canvas



Exhibition Banner

2023

41 x 32 cm

oil on canvas

* 모든 작품 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사진 제공은 에이라운지입니다.

* All Images ©The artist, Courtesy of A-Lounge, Seoul